



[정치]尹대통령 취임 후 첫 휴가 지지율 등 과제 05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51.50 (+16.23)	코스닥	803.62 (+5.30)
금리 (미국 3년)	3.009 (-0.121)	환율 (원-달러)	1299.10 (+3.00) (7.29)

# “2.7% 무리없이 달성” vs “수출 의존 韓, 중장기 타격”

〈한국은행〉

〈IMF〉

## 韓 성장률 목표 ‘엇갈린 시선’

한은 “0.3%씩 증가면 2.7% 달성” IMF, 韓 성장률 2.3%로 하향조정 노무라證, 경기침체로 0.2%p 낮춰

올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8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연간 목표치(2.7%)를 두고는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전망치를 무리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게 조정했다. 특히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을 이끈 민간소비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목표치 달성은 세계 경기 침체 현실화 여부와 고물가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 ◆수출은 ‘흔들’, 소비는 ‘썩’

3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2022년 2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2.9% 상승했다.

앞서 금융시장에서는 0.3~0.4% 정도의 성장치를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망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 수출 부진 속에서도 민간소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가 1.4%포인트(P)로 전분기(-0.2%) 대비 크게 올랐다. 정부소

비,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2%p, 0.1%p다. 반면 수출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는 -1.1%p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전분기(1.7%)보다 급감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을 3.0%에서 2.7%로 전망했다. 향후 0.3%씩만 성장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022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회견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오는 3분기, 4분기에 0.3%씩 증가하면 조사국의 5월 전망치인 2.7%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韓경제 전망에 불안한 시선도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실제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대비 0.2%p 내린 수준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2.1%로 0.8%p나 내려 잡았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무라증권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7%로 0.2%p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오는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높은 금융부담과 경기침체 여파가 다가



“여름휴가 갑니다” 복적이기는 김포공항

여름 휴가철을 맞은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GDP는 민간 소비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성장을 주도했다. 다만 3분기와 4분기의 경우 민간소비 주도 성장이 유효할 지 의문”이라며 “명목 임금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는 반면 물가 상승률 고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아 실질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고, 7월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p 인상)에 이어 8월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투자 줄이고 ‘선택과 집중’ 산업계 불확실성에 고삐 죄다

위기 속에도 2분기 호실적 잇따라 하반기 소비재 위축에 둔화 불가피

산업계 위기가 현실화했다. 저마다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전망치를 하회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숨기지 않았다. 대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 분석과 새로운 전략도 제시했다. 연말에는 다시 소비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역대 최고 수준 반도체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대폭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재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이미 2분기에도 PC와 스마트폰 등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황, 하반기에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뿐 아니다. 2분기 LG디스플레이는 적자전환, 삼성디스플레이는 견조한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수요 감소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시장 침체가 지속하며 목표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업계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정유업계 역시 유가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미래를 추측하지 못했다. 무역적자도 4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끊어

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하반기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주머니도 단게 만들었다. 당장 SK하이닉스와 SK에너지솔루션이 국내외 투자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투자 계획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까지도 뜨거웠던 인력 확보전도 급격히 식어 일부 기업들은 채용 계획을 완전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활로를 모색하며 실적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찾아 ‘선택과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도체 업계는 ‘프리미엄’이 핵심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반기 수요가 견조한 서버 제품에 집중하는 가운데, 고수익성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GAA 등 선단공정을 앞세워 2025년 파운드리 자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가전과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전자업계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하반기 새로운 플래그십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업계도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가전 업계도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한 전략을 수립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공기관 이번엔 ‘지정기준·경영평가’ 손질

### 공공기관 방안경영 칼 빠른 정부 내달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공공기관 방안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이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8월 초 중순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

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각각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을 갖는데, 주무 부처 영향력이 커지도록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 자율성을 높여 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사퇴”... 與 비대위 전환 ‘급물살’ /사진 뉴스1  
▲ 대통령실,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에 “드릴 말씀 없다”

▲ 이준석, 與 내홍에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차려” 비판  
▲ 한미 ‘핵우산 협의창구’ 9월 다시 연다... 연내 핵전쟁 대응 연습도



▲ 이재명 측 “국힘, 죽음마져 정쟁 도구로 써... 깊은 분노” /사진 뉴스1  
▲ 아베 피격 사건 의식했다... 北, 김정은 공개행사 때 ‘밀착경호’ 강화